

북한영화관련 경찰 학내 진입

관람객 등 1천여명, 전경과 대치하며 '소금' 등 상영

경찰의 공권력 투입이 예상됐던 북한영화상영은 지난 31일 양평 퍼스에서 2천여명의 전경이 학내에 진입, 이를 저지하는 동안 영화가 상영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런 북한영화상영은 지난번 고려대, 연세대 등에서 공권력의 투입이 있었으나 전대협이 북한 바로알기운동의 일환으로 전국15

개 대학이 동시에 상영되어 9개 대학(본교 수원캠퍼스 포함)이 '소금', '탈출기'를 완전 상영했다.

서울캠퍼스는 이날 오후 2시 크라운관에서 상영될 예정이었으나 전경 6백여명이 진입해 '탈출기'는 10분만에 중단되고, 다시 상영된 '소금'은 50분만에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관람객을 포함한

5백여명의 학생들은 교내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학내침탈을 저지했으며 크라운관 앞까지 들어온 전경을 돌고 화염병을 던지며 교문 밖으로 밀어냈다.

또한 수원캠퍼스는 오후 3시부터 학내에 진입한 1천여명의 전경을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돌고 화염병을 던지며 4시간 동안 강력하게 맞서는 가운데 4번

이나 중단되며 산업대학관 시청각실에서 '소금'이 상영되었다.

허현무(우주·4)민자당 본새를 위한 특별위원장은 학내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 "암울했던 5공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다"며 "명백히 드러난 반민주적인 민자당의 본질이 이번 학원침탈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북한영화를 상영한 서울시립대, 고려대, 전남대 등 9개 대학은 2, 3차례 장소를 옮기며 예정했던 북한 영화를 상영했고, 서울여대·조선대·목포대는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았다.



가자! 자주외 함성높이

엎매인 끈들을 환한표호로서 풀어 버리는 경희의 젊은 자자들. 가자! 자주외 함성높이... 우리 모두가 하나될 때 비로소 일어 설 수 있으리라 민족해방의 그날을 위해 <지난 1일 노천극장에서 있었던 '열전! 전진하는 교향인' 중에서> <엄홍준 記者>

캐나다 콜럼비아 대와 학술교류 체결 현재 45개 대학과 자매결연

국제교류위원회(위원장 조영원 교수)는 지난 10월 9일 캐나다 드 리티시 콜럼비아 대와 학술교류를 체결했다.

본교와 자매교류를 체결한 브리티시 콜럼비아대학(총장 데이비드 스트링웨이)은 1908년 설립되어 교수 1천9백8명, 학생수 2만6천2백19명, 총21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6일=전통일일차집, 작품전시회, 의료원화에 대한 공청회 △7일=학술제(동원 학술분과) 한울제(동아리연합회) △8일=체육대회 △9일=의인의 밤, 황제의화상수상식

수원신분방송국 개관식 오는6일, 학생회관로비서 수원캠퍼스 '신분방송국' 개관식'을 오는 6일 오후 3시 학생회관 로비에서 개최한다. '신분방송국'은 1층에 본사와

중앙도서관 공산권 자료개방 북한 자료 포함, 7일부터 특수자료실서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은 공산권관계 자료를 비롯한 특수자료를 오는 7일부터 매주 수, 목요일 일반 재학생에게도 공개한다. 이번이 공개될 자료는 북한관계 자료를 포함해 일간지 7종 2책 46권, 주간지 4종 2책82권, 단행본 1백88건 등 총 4천2백48권, 1천3백여권이 있다.

또한 열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중앙도서관 3층 특수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출, 복사는 되지 않는다.

한편 박후용 도서관 열람과장은 이번 자료공개에 대해 "그동안 취급인가자에 한해 연구자료용으로 이용됐던 것을 최근 관계 당국의 인가조치에 따라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열람준수사항을 지켜 분실이나 손상이 없는 한 많은 학생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령

이금주(국문·1), 김기태(경제·1), 방현기(경제·1), 최한수(경제·1), 황선선(영교·1), 오은희(영교·1), 송보영(중문·1), 엄홍준(서반어·1), 이효숙(회계·1), 이지환(사회·1) 등 수습기자(이상 11월 5일자)

대학주보사

교수연구년제 시행세칙 확정

내년 3월1일부터 본격 실시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3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확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학술연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연구년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가진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의결, 심사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연구년 대상교원의 자격을 심사할 때 재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기준은 재직경력, 연구실적 등 요건에 따르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또, 임상교원의 연구년심사는 본교부속 경희의료원에 위임할 수 있다.

▲연구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년 신청서, 활동계획서, 서약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대학장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청절차는 소속대학장을 경유하여 연구년 개시 6개월 전까지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 및 승인통보는 교무처장이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소속대학장에게 매년 5월30일 및 11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기헌 공판, 6일 수원지법 지난 8월 12일 연행, 구속된 이기헌(무역·4) 수원지법 3회 생회장의 선고공판이 오는 6일 10시 수원지법 법원에서 실시된다. 영환법, 상해치상죄, 특수공무 집행방해죄, 집회시위법 등으로 5년을 구형받은 이기헌 총학생회장은 현재 수원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수원 교내외 장학금 내역 발표 1천9백여명에 7억 6천여만원 지급

수원캠퍼스 학생처는 지난 2일 90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내역을 발표했다.

교내 장학금은 1천7백14명에 6억8천71만3천4백25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복지장학생은 총50명에 1천만원이 현재 지급되었다.

또한 그동안 장학금 외로 지급되던 과대표장학금이 장학금지급사안에 포함됨에 따라 1학기 1천5백22명에게 지급되었던것에서 약 2백여명이 늘었다.

구체적인 장학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총장장학: 2명, 약 66만2천원
△교무장학: 72명, 약5천9백50만원
△경희장학: 65명, 약 5천2백만원
△보훈장학: 1백명, 약 4천1백만원

△체육실기장학: 1백60명, 약 1억3천만원
△간부장학: 1백32명, 약 3천9백80만원
△간부(근로)장학: 35명, 약 1천6백만원
△선발A장학: 1백2명, 약 8천40만원
△선발B장학: 96명, 약 3천8백40만원
△선발C장학: 3백명, 6천만원
△국빈장학: 3명, 약 1백13만원

한편 대외장학금은 경방장학의 26개장학 재단으로부터 1백67명

에 총8천1백47만3천여백만원이 지급되었다.

노조 수원지부 단체교섭 결렬 오는 6일, 쟁의찬반 조합원 투표

노동조합 수원지부는 지난 30일 학교측과 가질 예정이었던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6일 체육과학관 시청각실에서 있을 임시총회에서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런 단체교섭의 결렬은 노조 사무실 상조자에 대한 사항과 주력용자의 지원에 대한 학교와 노조간의 이견차이로 인해 결렬된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5월 19일 만료된 '단체협약'

노조 수원지부 단체교섭 결렬 오는 6일, 쟁의찬반 조합원 투표

을 갱신하기 위한 '조합원 토론회'를 오늘부터 구역별로 실시한다.

행정학과 학술세미나 법과대학 행정학과 학술세미나가 오는 9일 오후2시 도서관시청각실에서 열린다.

'U.R과 한국의 농업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3학년까지의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성된 10명이 주제를 발표, 토론하고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학생 이익에 부합되어야 할 학내시설물

▼여름철 피서지에서 숙박장소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은 종종 볼 수 있지 못하여 대회가 무산되었다. 체대 두손님의 예약을 받는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손님이 먼저 방을 예약했는데, 뒤늦게 온 손님이 주인을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예약을 맺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때어버림으로써 일을 마무리 지어 버렸다.

대교과과에서 강조하는 '확인과정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소를 제공 받지 못하여 대회가 무산되었다. 체대교과과 측은 '일반 학생들이 학내시설을 사용하려면 학생들의 장소 사용하가원과 협조전등의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체대교과과에 접수해야 한다. 그 후 행사 며칠 전에 다시 시간과 장소 조정에 대한 재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가진 쪽을 '무시(?)'한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대운동장등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는 체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학내의 모든 시설은 경희인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닐까? 더구나 이번 경우에는 체대가 강의 또는 운동부 연습시간이 아닌 동문체육대회를 위해 상대방과의 절차상 사전합의도 없이 일을 처리한 것은 '행정처리과정에 익숙치 못하면 자신의 시설물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합의가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학내의 시설물은 구성원 모두가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운동장 또한 전체 구성원들의 체육과 우호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 시설물에 대한 임의적인 사용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중복이 되었을 경우 당사자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견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검증고시 동문회와 상록회의 회생(?)은 학내시설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환기해 해주지 않았을까.

대학주보 기획 광고 -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이제는 진솔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과장과 포장속에 커져가는 불신의 벽

선거 때마다 수없이 뿌려지는 전단가는 곳곳마다 널려 있는 공약들 선거 당시 학생들에게 무책임하게 남발된 공약이 실제 사업속에서 실천되지 못할 때 학생들의 '불신의 벽'은 커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공정선거로 '정의의 실천의 장'인 대학을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대학주보사

